

오월의 꽃나 예술로 다시 피다

5·18 30주년 무용·오페라·연극·미술 등 문화행사 다채

‘예술로 승화시킨 5월 광주.’

5·18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연극,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행사들이 마련됐다.

◇한국무용 ‘꽃·비’

김미숙하나무용단은 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창작 무용 ‘꽃·비’를 무대에 올린다.

‘꽃·비’는 1980년 5월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광주의 모습을 역동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으로 화려한 세트와 강렬한 음악이 눈길을 끈다.

주역을 맡은 이세라씨 등의 연기가 뛰어나고 특히 화려한 춤사위를 온몸으로 표현한 남자무용수 배강원씨의 독무 부분은 깊은 감동을 준다. 작품 마지막, 무대 위로 떨어지는 노란 꽃비 역시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선정돼 초연됐다. 문의 062-265-3579.

5월의 아픔 넘어 새 도약 꿈꾸는 ‘꽃·비’

충격 사망 최미애씨 이야기 ‘무등 동동’

◇오페라 ‘무등 동동’

전남대 강숙자 교수가 이끄는 강숙자 오페라 라인 이 14~16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오페라다.

‘무등동동’은 시인 김준태·조태일씨가 광주와 민중화를 노래한 18편의 시를 모티브 삼아 대본을 쓴 작품으로 임신 8개월인 상태에서 충격과 사망한 최미애씨의 이야기가 주요 테마로 사용된다.

지난 2000년 5·18 20주년 기념작으로 김선철씨가 작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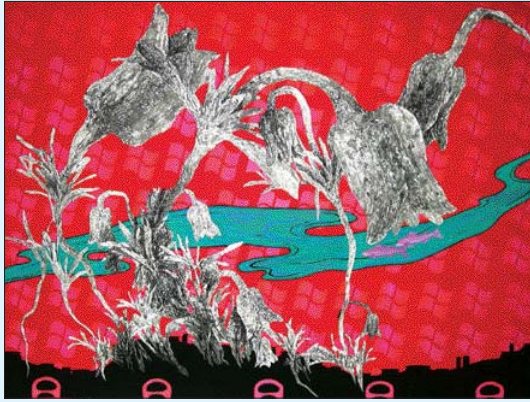
박창우·김한나·김기화·구성희·고수연·마명준·조규철·김원중·이상화·김성미씨 등이 출연한다. 정월태씨가 관현악 지휘를 맡는다.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푸른연극마을과 지역 예술인들이 선보이는 재현극으로 21~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1980



백준선 작 ‘그날 계획된 진군’



송대성 작 ‘춤추는 강’

이며 5월 영령들의 가수 노영심씨와 정태춘·박은옥씨 등도 출연한다. 두 공연 실황은 음반으로도 만들어진다. 문의 062-511-2446.

◇문인화로 보는 ‘5월광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은 7일~6월20일 문인화로 재해석한 5·18광주민중항쟁 관련 작품을 선보이는 ‘군자의 소’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백준선·윤성중·김순석·박대용·박병락·박주생·서남수·장안순·정현숙·송대성·강종래씨가 참여한다.

그동안 5·18 기념전시는 회화·설치·영상 등을 통한 전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단아한 묵으로 표현된 이번 전시가 더욱 눈길을 끈다.

백준선씨는 짙은 묵으로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공격하는 계를 표현한 ‘그날 계획된 진군’을 전시한다.

그해 열흘 재현극 ‘나는 살고 싶었다’

문인화로 재해석한 5·18 ‘군자의 소’

또 송대성씨는 소용돌이치는 강을 배경으로 역사의 장대한 흐름을 화폭에 담은 ‘춤추는 강’을 선보인다. 문의 062-613-5382.

◇‘오늘을 보는 시선’

광주롯데갤러리는 12일까지 ‘오늘을 보는 시선’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최요안·이정기·오용석·정인선·윤준영·김용철씨 등 젊은 작가들이 참여해 5·18의 가치를 조명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최요안씨는 부친의 영정을 들고 있는 어린 아이, 거리의 화살현장, 광장 앞의 무수한 군중 등을 통해 5·18의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또 정인선씨는 오색 국화를 통해 새로 피어나는 희망을 그려냈고, 오용석씨 도시의 적막감과 현대인의 불안감을 화폭에 담아냈다. 문의 062-221-180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민 이용 기다리는 무각사 문화관

시 소유 부지 81억원에 매입...갤러리·북카페 단장

도심 속 사찰에서 문화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문을 연다.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주지 청학스님)는 지금까지 텨플스테이 체험관과 전시실 등으로 운영돼온 문화관을 새롭게 단장해 8일



무각사 문화관이 갤러리와 북카페, 텨플스테이 체험실, 강당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하고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

무각사 문화관이 갤러리와 북카페, 텨플스테이 체험실, 강당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하고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 (무각사 제공)

무각사 김광란 기획실장은 “사람은 불자들만 들어서는 곳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며

“사람음식, 다도, 발우공양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터스 갤러리는 개관을 기념해 ‘빛의 화가’로 알려진 재벌화가 방해자 화백을 초청, 8일부터 6월 6일까지 ‘빛

에서 빛으로’ 특별초대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2-383-010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카자흐 거주 김병학 시인 번역 시집 2권 펴내

‘모브르마을에 대한 추억’ 등

구소련 고려인들이 사는 카자흐스탄에 19년째 거주하고 있는 신안 출신 김병학(43) 시인이 최근 두 권의 번역시집을 펴냈다.

재소고려인 3세 시인 이 스타니슬라브씨의 시를 한 데 모아 번역한 ‘모브르마을에 대한 추억’과 카자흐스탄 출신 시인 쿠난바예브(1845~1904)의 시를 엄선했던 ‘황금천막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것. 두 권 모두 한국어 번역문과 원문이 나란히 실려 있다.

‘모브르마을에 대한 추억’에는 총 7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시집에는 강제이주 이후 고난과 비극의 삶을 살아온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꿈과 좌절과 희망, 정체성에 대한 고민, 모국을 향한 그리움 등이 잘 녹아있다.

‘황금천막에서 부르는 노래’는 카자흐스탄 최고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아버지 쿠난바예브의 시 100여편을 엄선한 번역시집이다.

김 시인은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한글학교 교사, 고려일보 기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2005년에 시집 ‘천상에 올라’를 내면서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2007년 재소고려인 구전가요를 집대성한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1·2’를 펴냈다. 지난해에는 에세이집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사이에서’를 출간했다.



다.

시집은 제1부 ‘자연(풍경)에 대한 서정시-깊고 부드러운 눈밭으로’, 제2부 ‘철학의 서정시-공작공작깃 빛너의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을 구기

고’ 등 5부로 구성됐다.

김 시인은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한글학교 교사, 고려일보 기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2005년에 시집 ‘천상에 올라’를 내면서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2007년 재소고려인 구전가요를 집대성한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1·2’를 펴냈다. 지난해에는 에세이집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사이에서’를 출간했다.

문의 062-383-010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미숙하나무용단의 ‘꽃·비’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민네데

세계가스타·세기보청기

1388-8489-888-22-1108